마을사랑봉사단 단원('15년~)
예장귀농귀촌상담소 상주낙동지소 소장('16년~)
낙동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위원('22년~)
상주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총무('23년~)
신상1리 6반 반장('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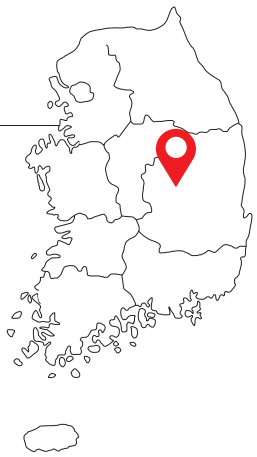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김정하 활동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신상1리의 김정하 활동가는
10년 넘게 이장, 봉사단장 등 지역리더들을 지원하며
마을 활성화와 갈등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마을·세대 간의 연결을 지향하는 이음센터를 제안하고,
지역리더 지원, 마을경관 조성, 귀농귀촌인 유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며
낙동면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소통과 연결이란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하 활동가의 활동지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상1리, 2리
주요자원	꽃피는 낙동면 운동, 해바라기밭, 얼음 썰매장, 귀농인의집(5채), 마을공작소, 마을 음악회, 행복학습센터, 농촌작은문화교실 등



▲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가꾼 해바라기밭

"

헌신하는 활동가와
함께하는 마을의 성장

"

▲ 신상리 마을음악회

▲ 상주시 프리마켓 생활소품 체험부스

마을 경관조성으로 명소 만들기

신상리는 1,400평 부지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꽃피는 낙동면 운동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 및 귀농귀촌인이 함께 해바라기를 심고 추수하며 꽃이 피지 않는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장으로 활용합니다. 한편 여름철 농작물 빛 피해로 촉발된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상주시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으로 태양광 등 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밤에도 마을을 산책할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개발 및 활성화 선도

마을공원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회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낙동면 및 신상리 주민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제작하고 4,000부를 낙동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가를 활용하여 마을공작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열리는 목공교실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벤치를 제작하고 각자의 기기를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행복학습센터 공개수업

▲ 농촌작은문화교실

2022년 낙동면과 마을사랑봉사단이 행복학습센터 업무위탁 협약식을 개최하고 낙동면민회관과 복지회관에 행복학습센터를 유치하여 평생교육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10여 개의 강좌를 진행하며 지역 유휴시설 활용과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유치하여 신상마을 전시회를 여는 등 마을 내 아이와 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세대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리는 귀농귀촌인의 마을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소한 귀농귀촌상담소와 상주시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의 집 5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였고 그 결과 신상1리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하는 농촌작은문화교실에 선정되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천연염색·노래·목공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포 사일리지를 활용하여 상주시 농촌마을 투어 프로그램 '숨은 곤포를 찾아라'를 추진하였고 마을경관에 특색을 주어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포럼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마을만들기를 진행하였던 김정하 활동가는 현재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 모두장터에 참여하고 각종 지역축제를 진행하며 2023년 창립된 마을만들기 협의회에서 총무로 활동합니다. 또한 상주시 농촌마을을 소개하는 '행복한 상주시, 마을만들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숨은 곤포를 찾아라(상주시 농촌마을 투어 프로그램)